

검사대상자 중 89.8%가 기생충 양성자

임 기 선 · 충북의대 기생충학교실



▲ 위간현 주혈흡충예방 치료소에서

7월 10일, 북경의 오후는 화창했다. 방금 한 중의학회가 막을 내렸고, 한국측 기생충학자 중 몇명은 곧이어 열흘동안 있게 될 ‘중국 기생충 현지조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오후 4시, 성정웅 총장을 비롯한 건강관리협회 파견팀이 우리와 예정대로 합류했다.

11일, 팀은 둘로 나뉘어 안휘성 팀이 먼저 출발했고, 우리 강서성 팀은 오후에 출발토록 되어 있었다. 조승열·민득영·홍성태 교수와 필자, 건협외 김홍식, 황의혁, 정동진이 한팀이 되어 가까운 천안문과 자금성을 관광했다.

4시 비행기로 강서성행. 중국말만 하는 스투어디스와 함께 2시간을 날았다. 남창의 공항은 그리 습하지 않았다. 강서성기생충병연구소의 張紹基소장, 林丹丹주임, 楊九生운전사가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숙소로 가는 차에서 우리는 아주 유쾌했다. 양기사가 들려준 테이프의 노래가 우리 노래 같았기 때문이다. 밤이

늦었지만 민교수의 제의로 간단한 업무분담 회의를 열었다. 조교수를 팀장으로, 홍교수를 의국장으로 하여 황, 정 병리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 일심 협동키로 했다.

12일, 아침 7시에 최종 목적지인 위간현으로 출발했다. 다만 민교수는 임회장님의 연락으로 급히 일정을 변경, 안휘성으로 분산 출발했다. 위간현으로 가는 길은 침수되어 부분적으로 끊겨 있었다. 도로가 강이 되어 버린 것이다. 배로 짐을 옮겨 신고 건넜다.

10시 5분, 마중나온 吳忠道부소장을 따라 숙소에 도착했다. ‘위간현주혈흡충예방치료소’까지는 자동차로 10분 남짓, 많은 사람들이 일행을 반겨주었다. 許隆棋 선생이 상해에서 와 계셨고, 강서에서 수일 전 파견나온 許雪萍 주임, 謝鄴武, 劉跡民, 曾小軍, 高祖祿, 尹東 주관의사, 張瑞英, 그리고 ‘위간현주혈흡충예방치료소’의 여러 직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기생충 현지조사연구사업을 위하여 방문한

한국전문가를 환영합니다’라며 환영해 주었다.

조사지역은 江西省 余干市 楓林灣村으로 포양호(Poyang lake)의 남동쪽, 信江 하류에 위치한 마을이다. 주민 1,125명의 작은 마을로 농업을 주로 하며 개인소득은 160불이다. 펌프를 사용하며, 대변은 비료로 사용한다.

홍교수와 황, 정 병리사는 중국팀과 함께 협력하여 셀로판후충도말법, 포르말린-에테르 침전검사법, 구충란 배양, Kato-katz 변법 등의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필자와 김과장은 7월 13일 신평초등학교에 파견, 요충검사를 전담키로 했다.

吳부소장과 연구원들의 열성에 힘입어 검변재료는 1,004명분이 차질없이 수집 보관되어 있었다. 나도 틈틈이 검경에 참여했는데, 許선생은 셀로판후충도말에서 주혈흡충란을 찾아 보여 주었다. 조승열 교수와 우리 팀 모두에게는 처음이었다.

우리로 발견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였으나 워낙 드물



▲ 요충검사를 실시한 강서성
신평초등학교 어린이들

어서 판정관 격인 許 선생은 시중 뿌시 (否是!, 아니오!) 를 연발하게 되어 나중에 뿌시시엔성 (否是先生, 아니오 선생)이라는 별명을 얻는 원인이 되었다.

검경은 유쾌한 분위기에서 때로는 필담을 즐겨 가며 진행되었다. 저녁식사 때 우리 쌀밥과 깻잎장아찌가 인기였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취침. 천장에 달린 직경 60cm, 길이 2.5m의 독특하게 생긴 모기장이 고단한 하루를 달래 주었다.

13일, 중국의 아침은 쿵후(功夫)로 시작되었다. 마을 동산에 하나 둘 모여든 중국인들은 어느새 십수명, 수십명의 무리를 이루어 쿵후를 시작한다. 음악이 동산을 메웠으나 몸놀림으로만 이야기할 뿐 의외로 조용하다.

풍산링(東山嶺)은 마을사람들의 아침 사교장이었다. 우리 숙소는 余干縣委招待所로 풍산링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모든 풍경을 잘 볼 수 있었다.

오늘은 요충검사를 위하여 김과장과 파견나가는 날. 약속된 7시 30분에 許, 吳, 曾 선생을 만나 북으로 달렸다. 도로에서 강아지처럼 돌아다니는 돼지를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못 본 광경.

한시간 남짓, 신평초등학교(信豐小學校)에 도착했다. 430여명의 학생이 일시에 창문을 내다 보았다.

검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한국과 중국팀이 각각 맡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곳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질서정연한 가운데 두시간 만에 마칠 수 있었다.

실험실에 다시 돌아오니 11시 30분. 검경에 한창이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및 내장의 식습관에 관한 공동 설문조사는 품립만춘 5개 지역으로 a, b, c, d, e 각각 57, 51, 49, 52, 68 도합 277 가족에 대해 실시했는데 대상자 399명 전원에서 생식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을 들었다. 여러 연구자들도 과거에 테니아가 발견된 적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아침은 차오쯔(만두), 바오쯔(송편모양의 만두), 분타오(국수), 쌀죽 등. 모두 입맛에 맞는다. 각자의 임무를 계속하고, 요충검경도 계속했다. 요충은 예상외로 양성자가 적었다. 그러나 토양매개성 기생충란은 셀로판후충도말에서 매우 많이 나와 거의 모든 사람이 회충 또는 편충에 감염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간흡충, 구충, 일본주혈흡충, 이형흡충란은 적게 나왔다. 황과 정 병리사는 포르말린 - 에테르 침전검사를 실시하여 대장아메바, 왜소아메바, 람블편모충 등 원충도 검출했다. 중국팀은 Kato-Katz 변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중국인의 점심은 보통 12시부터 2시30분까지로,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 다녀 오는 사람도 많았다. 점심식사 후 시장구경을 나갔다. 기생충학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물마름이 곧 우리 눈에 띄었고,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발걸음을 멈추었다. 홍교수가 선뜻 오원을 내어 놓으니 중국인 아주머니는 희색이 만면하다. 큰손을 만난 것이다. 비대흡충의 감염원이 되는 이 린쥬(菱角)는 심심풀이로 깨먹는데, 좋아서 물어 뜯는 동안 유충이 감염되는 것이다.

오후에 임희장님과 성총장, 그리고 馮正 상해연구소장 일행이 안휘성에서 도착했다. 4시에 주혈흡충에 대한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소개와 간단한 회의를 했다. 江 부점장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발표를 했고, 추후 보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요약: 위간현은 아열대기후구로 유채(배추 비슷한 채소) 및 각종 담수어가 많이 잡힌다. 인구 85만, 위간현 34개 중 24개 부락에 주혈흡충이 유행하며 1956년 이래 누계산출 주혈흡충증환자는 62,950명이었다. 중간숙주패류의 99.5% 이상이 포양호 주변 초지에 분포한다.

계절적으로 언제든 주혈흡충 감염이 가능하지만 봄 가을에 쉽게 감염된다. 물을 가까이 하는 직업을 가진 주민에 잘 감염되며 (80%이

상) 수영 등으로 감염되는 비율은 매우 줄었다.

중국 건국(1945) 30년 전 주혈흡충증이 대유행하여 34개 마을이 초토화 된 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1,871 가구를 없애고, 도합 9,386 명이 사망했다. 조업 중단, 폐교 조치도 있을 정도로 중국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1953~1959년에는 주혈흡충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기구와 체제 정비, 제도 규칙 마련, 검변, 피내 반응, 직장경 등으로 현황 파악에 전념했으며, 주석산 칼륨을 치료제로 사용했다.

1960~1970: 중간숙주패류 퇴치 사업으로 제방쌓기, 대규모 조사 치료 병행, 1971~1980: 트랙터로 패류 서식지 파괴, 1981~1985: 간접혈구응집반응을 진단법으로 도입, 1986~1988: 전성에서 세부조치·주혈흡충 타입에 따른 세부조치 마련, 1989~1991: 포양호 지역의 대규모 조사사업, 1992~1996: 세계은행 용자에 의한 주혈흡충 방제 연구사업 실시로 주혈흡충의 동태를 장악하여 유행도를 개선했으며, 활발한 학술교류로 전문가를 많이 배양하여 북부능력을 제고했다.)

15일, 오전 중에 일을 마무리했다. 구충 배양 결과는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남창에 있는 연구소로 운반키로 했다. 임회장 및 馮소장 일행은 마을 현지를 방문

하여 생활과 위생상태를 관찰했다. 낮에 장쑤터 부주임 의사로부터 '위간현주혈흡충예방치료소'에 내과,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 비뇨기과, 외과 및 순환계, 혈액계 전담의료반이 있고, 전염병 및 기생충병을 다루는 각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문진환자는 연간 26,000명(외래환자), 그중 집중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500명 내외라고 한다. 의사포함 152명의 진료부직원, 연구원이 있고, 의사중 임상이는 65%, 나머지 35%는 기생충을 전담하는 의사. 통계상 전 내원자의 80%이상은 기생충증 환자이며, 이중 주혈흡충은 기생충질환의 10% 내외를 차지한다고 한다.

3시경 일을 완전히 끝내고 정리했다. 최종 결과는 1,004명 대상자 중 902명(89.8%)이 기생충 양성자였고, 종별로는 회충 67.7%, 편충 76.6%, 구충 0.2%, 간흡충 0.2%, 이형흡충 0.1%, 주혈흡충 0.1%였다. 요충은 430명 중 2명으로 0.5%, 원충은 84명중 9.5%가 양성으로 종별로는 왜소아메바 2.4%, 람블편모충 3.6%, 대장아메바 4.8%였다.

침수되었던 길은 회복되었고, 우리는 남창으로 돌아갔다. 장소장이 저녁 만찬을 베풀어 이번 여행 중 가장 맛있는 중국음식을 즐겼다.

16일, 루산(廬山)으로 향했다. 양선생이 운전을 하면서 예의 그 노래를 또 들려

준다. '유량자의 마음(渡子的心情)'. 다분히 유행가적인 곡조와 가사 내용이다.

귀로에 許선생으로부터 씨엔호어차수(仙鶴草樹)로 만든 취타오완(驅鱗丸, 상품명)을 테니아 치료제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에 周標 강서성위생청장과 謝治民 강서성주혈흡충병관리 주임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17일, 며칠간 정들었던 장소장, 吳, 林, 楊 선생과 아침에 작별하고 상해행 비행기에 올랐다.

안휘성 팀과 합류, 상해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물품 기증식에 참석했다. 임회장과 馮소장의 짧은 연설에 이어 서명식이 있었다. 한중 교류의 새 장을 여는 순간이었다. 미국 NIH와의 250만 불 협력연구는 상해연구소에 큰 활력을 불어 넣고 있었다.

점심을 먹으며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특히 앤지주(嚴自助) 번역학교수가 기억에 남는다. 혈청학적 진단을 연구하고 있는 재원이다.

오후에 상해임시정부 김구 선생의 인물됨과 명대 명원 '예원(豫園)'에 대한 임한중 회장의 설명과 견해를 버스에서 듣는 사이 어느덧 우리 일행은 중국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있었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닌 또 하나의 세계라는데, 이번 사업이 공생적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작은 탐구가 되었기를 바란다. ㉞